

신협전북지부, 스포츠후원 무주고-한별고서 간담회

김성아 | 승인 2020.06.30 17:43 | 댓글 0



신협중앙회 전북지부(본부장 김영하)는 학교 스포츠단체 후원사업에 선정된 무주고등학교(바 이애슬론), 한별고등학교(여자축구)를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 스포츠단체 후원사업은 비인기종목이거나 장차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학교 스포츠단체를 후원하는 신협중앙회의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다.

전국 신협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 올해는 총 16개 스포츠 단체(클럽)가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무주고등학교, 한별고등학교 등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신협 전북지부는 무주반딧불신협(이사장 김기중) 관계자와 함께 무주고를, 삼례신협(이사장 유원영) 관계자와 한별고를 연달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반딧불신협과 삼례신협은 선수들을 격려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하 본부장도 각 학교의 선수들에게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미래의 꿈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며 "스포츠를 통해 전북지역 도민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길 기대한다. 신협도 스포츠를 통해 나눔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신협중앙회, 전국 16개 학교 스포츠단체 후원 통해 꿈나무 어부바 이어간다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06.30 | 13면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 | - | ✉ | ☞ 인쇄하기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개최한 '지역스포츠 단체(클럽) 후원 전달식' 오찬회에서 전국 16개 학교에 지역 스포츠 단체 활성화 및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총 2억 1,500만 원 상당의 운영비와 스포츠용품을 후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협이 주관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단체 후원사업'은 2019년 대구고등학교 배드민턴부를 시작으로 비인기종목이거나 장차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학교 스포츠단체를 후원하는 사회공헌 성격의 사업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스포츠물품과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무주고등학교와 삼례 한별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신협 관계자들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 선수 학생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함께 하며 꿈나무들에게 응원을 이어갔다.

지난달 26일엔 무주고 바이애슬론팀을 방문했으며, 다음날 27일엔 삼례 한별고 여자축구단을 찾아 전달식 겸 선수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영하 신협중앙회 전북본부장은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미래의 꿈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스포츠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